

고양·파주시 남북교류 사업, 통일부 사전승인 획득

이주영 | 승인 2021.12.27

전국 10개 지자체 추진·신청한 24개 사업대상에 포함
화훼 및 통일음악회·장단콩 활용한 농업협력 등 준비



통일부

고양시의 남북 간 화훼교류 및 통일음악회 파주시의 장단콩을 활용한 농업협력 등이 남북교류 협력사업 사전승인 됐다

통일부는 전국 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신청한 개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해 사전승인했다고 밝혔다

통일부는 그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승인이 필요한 협력사업을 공모했다며 사업의 공공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승인 대상에는 광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협력사업이 포함됐다 고 덧붙였다

통일부의 지자체 남북교류 사전승인제도는 지난 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주체성 명시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후 다음 달 지자체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방안 발표에 따라 지자체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협력사업 승인절차와는 차별화 간소화된 협력사업을 일컫는다

이에 통일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남북교류 사업을 심의한 결과 경기 고양시가 제출한 남북 간 화훼교류 및 통일음악회를 비롯해 파주시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장단콩 등의 농업협력 등을 승인했다

통일부의 이번 승인 사업은 농축산 산림 등 개발협력사업이 개로 가장 많고 종교 체육교류 및 공동학술연구 등 사회문화협력사업 개 전염병 공동 방역등 보건의료협력사업 개 등이다

통일부는 이번 사전승인을 통해 앞으로 보다 많은 지자체가 책임성과 자율성 하에 북한과의 협의를 전제로 지역적 특색을 살린 협력사업 추진을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통일부는 향후 이들 지자체의 협력사업이 국내외 관련 규범을 준수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고 강조했다

한편 통일부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사전승인은 내용 실현성과 구체성 남북간 분쟁 사유 없을 것 시행 사업 경쟁 가능성 없을 것 국가안보상 해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사업 등에 대해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거나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해 설치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로부터 심의 의결을 거친 협력사업 등이 해당된다

통일부는 북한 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등을 추후 받을 예정으로 통일부 남북협력기금과 복수방문증명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

이주영 기자

저작권자 © 인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이주영

이주영

[다른기사 보기](#)